

# 신권 지폐식별기, 위변조 지폐 입수 파장 확산

## 산업계 대책 마련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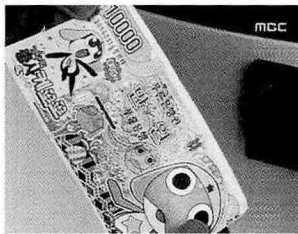
지난 7월 10일 MBC뉴스 데스크는 가짜 지폐도 입수하는 '눈먼 자판기' 실태를 고발 취재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폐식별기의 생명이 품질 신뢰성인데 위폐에 뱅뱅 뚫리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자판기에 대한 큰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모방범죄 및 조직적 위폐 확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지폐식별기 분야가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고 양적인 시장 확대에만 매달린 폐단이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위폐문제가 일찌감치 공론화가 되어 산업계가 품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제품이 우후죽순처럼 깔린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견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산업계는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협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 산업계의 현명하고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판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신권용 지폐식별기 '위변조 지폐 사용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산업계가 위변조 지폐 입수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려면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엄밀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불거진 위변조 지폐 입수 실태의 면면을 살펴보고, 산업계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진단했다.

### 위폐도 OK···눈 먼 자판기

먼저 지난 7월 10일 MBC뉴스 데스크에 보도된 '위폐도 OK···눈 먼 자판기' 보도 내용을 살펴보자.

- 앵커 : 최근 신권 지폐 사용이 가능한 기계로 자판기들이 바뀌고 있는데 일부는 가짜 지폐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료자동판매기에 한 쪽 면만 컬러 복사된 천원 짜리 위조지폐를 투입구에 넣었습니다. 현금 천 원이 투입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지하철역에 많이 설치돼있는 화장지 자판기. 마찬가지입니다.
- 대구 지하철 공사 관계자 : "모조품도 가능하단 말



이죠."

한 식당에 설치된 커피 자동판매기는 문구점의 장난감 지폐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커피 자동판매기의 경우 이처럼 색깔만 비슷한 종이 조각도 그대로 현금처럼 인식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자판기 운영업자들이 구권과 신권을 함께 감지할 수 있도록 자판기의 지폐인식기를 바꾸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싼 제품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 자판기 운영 업자 : "억지로 하는 거죠. 신권이 안 들어가니까 판매는 떨어지는데 어차피 바뀌야 되니까 웬만하면 싼 걸로...(바꾸는 거죠)" 30만원 짜리면 위폐를 대부분 구별해내지만 상당수가 15만원 정도하는 값싼 제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자판기 제조업체 관계자 : "(위폐식별) 기능을 넣으면 지폐식별기 단가가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니까요."

전국에 설치돼있는 자판기 약 50만대 가운데 현재 절반 정도가 지폐인식기를 교체했고, 이 중 3만대 정도가 위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까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걱정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올 1월 22일 신권발행이후 지폐식별기 관련업체들이 품질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치밀

히 진행하였을 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사항이었다. 특히 위변조 방지기능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마저 부재한 상황이라 더 했다. 위변조 지폐 입수라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지난해 품질인증시스템 도입하려 하였지만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지폐식별기 메이커들은 자율적으로 기술보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포커스는 입수율 위주로 맞추어 졌다. 제품이 필드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1순위 기능이 입수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입수율을 높이는데 치중하다 보면 위폐배제율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기술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두 성능에 대해서 철저한 기능 보완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시장특수를 선점하려는 업체간의 과당경쟁은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조급하게 출시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시장선점을 위해 위폐배

제율이 큰 신경을 안 쓰고, 입수율에만 매달린 업체들이 적지 않았던 것. 이렇다보니 위폐문제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는 불거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다. 시장에 있어 지폐식별기 교체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요인 중에는 해당업체 품질을 믿을 수 없으니 좀더 지켜보자는 관망 세력이 많았던 요인도 작용했다.

게다가 품질문제가 더욱 불거진 요인은 개조 지폐식별기의 활발한 보급이다. 기존 구권 지폐식별기를 프로그램 보완해 신권까지 받아들여지게 하는 개조품은 가격이 싸다는 장점으로 급속히 확산이 되어왔다. 개조품들은 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운영자들을 타깃으로 했다. '구지 비싼 신권 지폐식별기를 부착할 필요 없이 개조 보완하면 신권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영업이 개인 운영자들에게 먹혀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권지폐식별기에 비해 품질이 조악한 개조품들의 단점은 철저히 은폐시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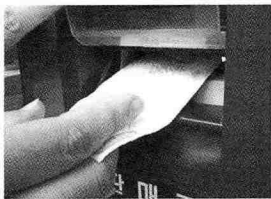
이러한 자판기 산업계 상황 속에서 위폐문제들이 불거졌고, 급기야 매스컴보도를 통해 지탄을 받는 현재의 사태에 이른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 결국은 폭발하고 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매스컴 보도는 위폐 입수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고발했다. 한쪽 면을 칼라복사한 위조지폐가 투입되거나, 장난감 지폐나 심지어 색깔만 비슷한 종이 조각도 입수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일부 제품에 한정된 문제이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졌다. 고발 프로의 특성상 마치 외부에서는 전체 자판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십상인 되다가, 전체적인 지폐식별기에 대한 불신들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난감 지폐가 투입되거나 하얀 종이에 청색을 칠해도 입수되는 지폐식별기는 개조품의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위폐들이 입수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지폐식별기로서 기본 기능인 위폐배제 기능이

전혀 갖춰져 있지 못한 것이다.

신 1000원권 한쪽 면을 칼라 복사한 위폐가 투입되는 것은 일부 회사 제품의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해당업체에서는 위폐 배제성을 아예 등한시 했을 리는 없겠지만 필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치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모방범죄 및 조직적 위폐대량 확산의 부작용 우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 위변조 지폐 입수 파장은 모방범죄 및 조직적 위폐대량 확산 사고의 부작용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매스

컴에 실태가 보도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모방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짜 지폐나 청색을 칠한 신 1000원권 사이즈의 종이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는 상황이 걱정된다. 개조 지폐식별기들 채택한 자판기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위폐 입수가 확산이 된다면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자판기가 청소년들의 위폐 범죄행위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자판기의 입지가 크게 위축이 될 수도 있다.

한쪽 면을 칼라 복사해서 자판기 유통을 확산시키는 범죄들도 우려가 된다. 1000원의 화폐가치가 높지 않아 자판기 1~2대를 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다량 자판기를 놓고 본다면 위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위폐로 내용상품 구입 후의 거스름돈을 노리고 다량의 자판기를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폰돈들도 모이면 꽤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자판기 털이의 신중수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산업계가 치밀한 대책마련을 진행해야 한다. 더 이상 위폐 입수문제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개선책 강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위변조 지폐 식별기능을 철저히 검증하여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해야**

위변조 지폐 입수 문제점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변조 방지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시장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시장의 흐름이 면밀한 품질에 대한 신뢰성 검토보다는 가격 싼 제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확산이 되어 왔다. 일단은 가격이 저렴해야 하고 품질은 다음 문제인 경우가 많았다. 품질은 신1000원이 입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비교적 가볍게 봤던 것이 사실이다. 위변조 지폐가 방지 성능을 검증하고 평가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게 현 사태를 야기한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지폐식별기 유저라 할 수 있는 자판기 제조업체 및 운영업체에서 철저한 품질위주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마인드 형성이 되어야 한다. 무조건 가격 싼 제품을 선호하는 것보다 위변조 지폐 식별기능을 철저히 검증하여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차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판기 제조업체, 개조 지폐식별기 대응 본격화해야**  
자판기 제조업체에서는 개조 지폐식별기 대응에도 적



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정 회사 자판기에 대한 개조품을 채택하는 현상들을 방지 시에는 차후 견잡을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지폐식별기가 문제를 일으킬 시 일반 소비자들은 자판기 전체로서 문제를 인식하게 마련이다. 즉 소비자나 비난은 특정 제조사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개조품의 경우 자판기 메이커가 아무 책임이 없는 데 차후 사후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조업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개조 지폐식별기 확산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시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개조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활동이다. 자판기 전문 운영자 및 개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정품사용이 아닌 임의로 지폐식별기 개조품으로 개체했을 시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해야 한다. 개조품은 절대 본사 A/S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반드시 주입시켜야 한다. 그 길이 개조 지폐식별기로 인한 자판기 메이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 해당 문제 일으킨 지폐식별기 업체는 철저한 리콜 실시해야

지폐식별기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위변조 지폐 식별 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위폐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폐식별기가 설 땅은 없다. 위폐에 무방비한 지폐식별기를 유통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 범죄행위이다. 범죄행위를 유발할 만큼 동기부여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업체들은 위폐 입수 문제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하루 빨리 프로그램 보완책을 강구해 향후에는 무자격 제품들이 유통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필드에 설치된 제품 중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조기에 리콜

서비스를 진행해 위폐 사용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조품 관련 업체들도 위폐배제도 안되는 무자격 제품을 무분별하게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고도 유통시킨다면 이는 사기행위와 진배가 없다. 순진한 운영자들이 나중에 품질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하는 상황이 확산되게 만든다면 자판기 산업계의 입지도 크게 위축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판기 산업의 동업자 정신을 갖는다면 무자격 개조품을 유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위변조 지폐 배제 기능은 개조품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 바야흐로 품질위주의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

어찌 보면 이번 위폐 입수 파장은 한번은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고도 볼 수 있다. 언젠가는 한번 불거질 문제가 조금 미리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현재의 사태는 지폐식별기 분야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를 찾아야 한다.

자판기 산업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지폐식별기 성능을 갖추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얼마 전처럼 가격에 만 주된 포커스를 맞추는 현상들은 지양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폐식별기 업체들도 품질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이를 강화하는데 사활을 걸 것이다. 바야흐로 시장이 품질위주의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

시장은 시련을 통해



▲ 본 사진은 특정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성숙해지고 발전을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중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 반면교사(反面教師)삼아야 한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

지 않고 가면 반드시 그 문제가 터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는 자판기가 위폐문제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신권용 지폐식별기 '위변조 지폐 사용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협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산업계가 현명하고 성숙하게 대처하여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판기 제조업체, 지폐식별기 업체, 대형 운영업체 등을 대상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현재의 문제점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전문을 게재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가짜지폐를 입수하는 '눈먼 자판기' 보도와 관련해 산업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협조 요청을 진행 드립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일부 자판기에서 한쪽 면만 칼라 복사한 위조지폐가 투입이 되거나, 일부 개조품의 경우 장난감 지폐와 심지어 색깔만 비슷한 종이조각도 입수가 되는 등 위폐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판기에 대한 심각성이 고발되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자판기에 대한 대외적 품질불신이 가중되고,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 행위 및 조직적 위폐 대량 확산 사고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산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치밀한 대책마련을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장 문제점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변조 방지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시장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필드에 문제 확산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철저한 리콜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폐식별기 유저라 할 수 있는 자판기 제조업체 및 운영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을 선택 사용할 때 무조건 가격 싼 제품을 선호하기 보다는 위변조 지폐 식별기능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조업체에서는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정품사용이 아닌 임의로 지폐식별기 개조품으로 개체했을 시'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지폐식별기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들은 위변조 지폐 식별 강화에 사활을 걸어 앞으로 가짜지폐 사용 확산으로 인한 외부 불신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필드에 설치된 제품 중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조기에 리콜 서비스를 진행하여 위폐 사용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협조공문은 산업계 공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숙하고 현명한 대책마련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송부 드리는 바, 귀사에서도 현재의 문제점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